



이제 그 길고 고통스러운 기업별노조의 터널을 빠져 나가자 합니다

-전국의료산업별노조 준비위 발족에 부쳐-

박분진

전국영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지 난 추석 연휴날 저리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 새벽별을 봤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릴 듯 흐르던 은하수,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걸익은 감처럼 이쁘게 반짝거리던 그 무수한 별들이 제게는 지난 겨울 역사를 향해 반짝거리던 조합원들의 그 눈빛 같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후 구름이 몰려와 그 별들을 덮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졌고 구름만이 사나운 기세로 세상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먹구름 뒤에서도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을 것이고 구름이 걷리면 그 별들은 다시 나타날 것임을 믿는다면, 그리

하여 다시 친연히 만날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구름을 걷어낼 바람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우리에게만 노동조합이 우리들의 전부일 때가 있었고,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은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불끈 주먹을 치켜올리던 환호하며 결의에 찬 합성과 힘찬 투쟁으로 화답하던 조합원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특별한 진술이 없어도 자본가들을 무릎 꿇리던 꿈같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노동조합은 불패의 신화였고 그 신화를 만들어낸 우리는 자랑스런 전사들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보다 상집수련회가 우선이었고 주머니돈을 털어 조합원들과 날마다 기울이던 전배는 생명수였고 풀맛같은 감로주였습니다.

그때 우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노동조합이 희망이 되어 주지도 않을 것만 같고 조합원들은 더이상 우리 사람들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위원장의 천마디보다 박찬호의 강속구가 그들에게겐 더욱 통쾌하며 삼집회의나 임금교섭보다 축구경기가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섭보고대회를 잡아놓고도 조합원이 몇 명이나 모일까, 저 역시도 합격자 발표를 보러갈 때보다 더 조바심이 나고 로비가 터져나가라 합성이 떠들썩하던 노조창립 기념일도 이제는 경품권 추첨으로 조합원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가슴에 투쟁의 결의

가 아닌 전자렌지나 커피메이커 따위를 안겨주는 씩씩한 연례행사가 되버렸습니다.

조합원들을 만나는 일도 두렵고 간부라는 자리는 이제 더이상 열정을 팔아 신념을 사고 땀을 팔아 보람을 사는 자리기 아닌, 억지로 머말아 상집회의 때 얼굴이나 내미는 일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적에게 병사를 빼앗겨 버린 장수들, 그들은 이제 노동조합에 머무는 일보다 백화점 문화센터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전태일열사명전 대신 방송통신대학 교재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합니다.

혼자 전선에서 총을 들고 서 있는 고단함과 외로움보다 늘 슬그머니 전선에서 빠져나와 총을 팔아 승진을 꿈꾸고 대포를 팔아 향락에 질들여지는 비겁함까지도 서슴치 않고 그런 간부들과 조합원들 사이엔 이미 건널수 없는 불신의 강이 깊어만 갑니다.

병원노조 기업별 노조운동의 역사 10년.

그것은 자랑스런 투쟁의 역사임과 동시에 치욕스러운 투항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이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투쟁을 통해 발전한다는 원칙은 노조 교본에나 있는 죽은 원칙일 뿐, 싸우다 깨져간 수많은 노조들은 더이상 영웅이 아닌 우리를 더욱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혼란과 무기력의 바다일 뿐이었습니다.

장렬히 싸우다 산화해 가거나 자본의 아가리 속으로 기어 들어가 노사협조주의를

부르짖는 지본의 헛바닥이 되는 두가지 길, 기업별 노조에선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기엔 10년 세월은 너무도 길고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주저 앉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합원들을 모으기 위해 이브닝 근무를 마치고 저절로 꺾이는 무릎을 세워 나이트 라운딩을 하던 동지들의 그 열정이 아니었다면, 단사를 비워 놓은 채 대진성모병원으로, 등산병원으로 한켠몸에 달려와 2박 3일을 함께 지새웠던 동지들의 그 책임감이 없다면, 밤새워 자판을 두드리고 인쇄소를 들락거리며 고3짜리 책가방보다도 무거운 유인물을 회청거리며 나르던 동지들의 그 헌신이 아니었다면, 젓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화장실에서 통통불은 젓을 싸 변기에 쏟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맴돌아 나쁜 엄마를 용서해라며 가슴에 짓보다 눈물 먼저 피던 그 긴밤들이 아니었다면, 임금 몇 푼을 위해 창자가 뒤틀리는 단식을 하며 날마다 가슴으로 혈서를 썼던 동지들의 그 결단이 아니었다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발밑에 툭툭 가을비처럼 떨어져 쌓이던 그 긴 버려카닥을 서럽게 서럽게 지켜보아야만 했던 동지들의 그 눈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그 모진 시련과 탄압의 험한 산맥을 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까?

동지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은 사막 가운데 피를 뿌려 샘을 파고 심장을 때어 비료로 쓰며 황무지에 꽃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샘물은 늘 갈증으로 목이 탔고 우리가 그렇게 피워낸 꽃들이 서서히 시들어감을 때로는 안타깝게 때로는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던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별 노조는 이미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와 간부들의 헌신성과 자기희생으로 유지돼 오던 기업별노조는 이제 5년이라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운명에 안세포가 빈진 말기의 암환자입니다.

방사선도 안되고 수술로도 고쳐질 병이 아닙니다. 더이상 기업별노조에 희망이나 기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곁고 고통스러운 기업별의 터널을 빠져 나가자 합니다. 파멸과 고립을 향해 걸주하는 지옥행 열차이며 자본가의 입속으로 돌진해 들어가 결국은 그들의 밥이 되고 마는 기업별노조의 끈적거리는 허물은 이제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의 희망은 이제 패배했다는 거짓말과, 자본과의 싸움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패배했다는 거짓말과, 불질과의 투쟁에서 인간성이 패배했다는 거짓말과 그리고 그런 것들은 폐해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짓말에 끌려다니며 아직은 시기유 결기만 한 산별노조의 자리에 수간호사의 꿈을 들여 앉히고 노동해방 대신 인사고과에 장래를 맡겨 비린채 나날이 파멸되고 개별화되는 저 조합원들과 함께

전임자와 간부들의 헌신성과 자기희생으로 유지돼 오던 기업별노조는

이제 5년이라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온 몸에 암세포가 번진 말기의 암환자입니다.

병사신도 안되고 수술로도 고쳐질 병이 아닙니다. 더이상 기업별노조에 희망이나 기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길고 고통스러운 기업별의 터널을 빠져 나가고자 합니다.

손을 맞잡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노동조합은 결코 죽지 않았음을 아니 당당히 외어서서 의료산별이라는 승리의 기관차를 타고 노동해방의 종착역에 갈내 다 다르고 말것임을 결연히 선포합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끝없는 희생을 통해서만 완벽해지는 만리장성입니다.

자본주의란 노동자들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될수록 더욱 강고해지는 자본가들의 야망궁일 따름입니다. 몸부림치면 철수복 생존경쟁이라는 악마에게 목덜미를 잡혀 더 깊이 빠져드는 그것은 수렁입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쁨을 주는 일터가 아니라 왜소한 자신을 발견할 뿐이고 인간적으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곳으로 날마다 향하는 저 억눌린 가슴들, 시계의 자명종 소리보다도 잠이 덜 깨 뼈까지 머리끝에 동원해서야 겨우 무거운 육신을 일으켜 세우는 저 무거운 발걸음들, 그 발걸음들을 산별노조전선로 향하게 할때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희망이요, 가슴 벅찬 환희가 될 것입니다.

힘있는 산별노조의 확립은 단순히 기업별노조의 통합이나 기업별 노조체제를 넘어섰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때 몇명이 모여서 설립 대회하고 신고필증만 받는다곤 바로 힘있는 노조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워싱턴 노동조건이나 사회복지제도를 정취해낸 서구 여러나라들의 산별노조 역시 하루 아침에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산별노조의 교과서로 불리는 독일의 산별노조 역시 1880년대 직종을 초월한 노조 결성으로 독일금속노동자연합을 결성했으나 채 1년도 되지 않아 반사회주의자법 등으로 탄압하는 자본가들에 의해 조직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1888년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기계공들이 그들의 직종에서 전국노조의 건설을 했으나 파업을 겪으면서 독일사용자총연맹에 비해 수적 열세와 재정적 무력감만 적나라하게 노출시킨채 파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노동자들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뼈저린 실패를 딛고 1891년 6월 독일금속노동자대회에서 독일최초의 산별노조 독일금속노동자연맹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300만명의 조합원과 월 500억이라는 조합비 그리고 노조전임자 숫자만 도 2,700명을 헤아리는 막강함을 자랑하

는 독일금속노조는 이렇듯 무수한 탄압과 시련을 뚫고 마침내 역사속에 우뚝서게 된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도 1898년 16개 전국노조 664개부문 37,0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직업별 노조로 출발한 스웨덴노총은 첫 단체협약을 17,500여명의 노동자가 무려 다섯달 반동안의 파업투쟁의 결과로 쟁취해 냈습니다.

그러나 1909년 사용자측의 공장폐쇄에 대응해 총파업을 조직해 냈던 결과는 노조의 참패로 끝나고 말아 1908년 16만 2천명의 조합원이 2년만에 8만5천으로 절반이나 격감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후 스웨덴노총은 조직개선작업을 줄기차게 벌여내면서 산별노조를 조직원리로 받아들여 1909년의 총회에서 산별노조를 조직원리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5년후 조합원 18만 6천명을 조직하는 성과를 내면서 결국 산별의 원리가 옳았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사민당이 장기집권을 하며 노동자중심의 정당을 통해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투쟁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별노조 건설의 역사가 성공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일본에서도 치열한 산별노조건설운동의 한때는 있었습니다.

50년대 산별회의라는 조직을 통한 산별노조건설투쟁. 일본총평이 주도했던 60년대 안보투쟁과 60~70년대 직장 해계모나 투쟁이 실패한 후 일본노조의 투쟁성은 상실되고 기업협조적이고 개량적인 노사관계만이 일본노동자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70년대이후 일본식 생산방식과 노무관리 방식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노조운동은 이제 박물관에서도 보기 드문 호랑이가 담배먹던 곰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임금제도 역시 연공서열제가 직부직능급제로 바뀌면서 노조활동에서 단체교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축소되어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비중은 20%인데 반해 직능급식 요소가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더 좋은 고과점수를 받고 더 좋은 직능등급을 받기위해 노동조합이 아닌 자본가들의 품무니에 서서 생존경쟁이라는 불가마속으로 불나방처럼 스스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기업별구조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고용의 미끼에 걸려 교섭권을 노조 스스로 포기하거나 임금동결을 선언한 많은 노조들의 경우를 보면서 2~3년후 일본같은 경우가 안되리라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 노조운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우리의 목줄을 점점 더 얹어매는 노동법개혁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일본식 노부관리

지난 겨울의 그 수모를 이제는 갚아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종로공원에서 종로에서 부산역에서 대백앞에서 황성공원에서 광주역에서 대전역에서 마산역에서 그 추운 거리에서 동지들의 손을 맞잡고 다짐했던 눈물의 맹세를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를 통한 생산방식의 관철과 노조 고사작전이라는 데 위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루 1.3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 나가고 직장내 이지에 현상이나 자살이 속출하는 일본처럼 노조가 죽은 물건이 되어 버리고 밀면 경주 남산의 부처님 코를 갈아먹어도 번강쇠되기는 이미 틀린 일입니다. 그나마 기운이 있을 때 힘 한번 씁시다. 천생연분 찰떡궁합 신앙각시저런 긴밤 짧은밤 조합원들하고 연애를 해서 의료산별노조라는 이 나라의 장손을 한번 꼭 낳아봅시다. 이 땅에서 10년 산고 끝에 처음으로 얻는 첫 아이입니다.

낳아 놓고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제대로 키우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뒷산에 가서 본드나 마시면서 가솔이나 일삼는 애물단지가 되거나 너무 오나오나 키우면 마마보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돈이 없어 아이를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것도 곤란하지만 돈때에 빠져서 전자오락실에서 낄밤을 새우다 나중엔 영삼이 짓가습이나 파고 들며 보내는 관료적인 산별이 아닌 씩씩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산별시대의 계급적 요소는 통일적이고

임금투쟁뿐만이 아니라 노동약법이나 억압적인 제도의 개선은 물론 정치적 사안에 까지 개입해 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난 겨울 노동약법 날치기에 맞선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아가 쌍관총을 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도둑질해 버렸습니다.

지난 겨울의 그 수모를 이제는 갚아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겨울 종로공원에서 종로에서 부산역에서 대백앞에서 황성공원에서 광주역에서 대전역에서 마산역에서 그 추운 거리에서 동지들의 손을 맞잡고 다짐했던 눈물의 맹세를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실천을 위해 지난 9월 5일 민주노총대의원대회에서는 권영걸 위원장님의 대선출마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조직내부의 논의가 대중적으로 수렴되지 못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힘찬 결의에 기초하지 못한 상황에서 10만원이면 핵심이 되고 만원이면 아발이 되는 선택만 남겨진 것 같아 당황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과정상의 이리저리한 문제들은 실천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선거판에서 우리 후보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누굴 찍어야 합니까?

키 179M에 44kg짜리 뱀장어 아빠를 찍어야 합니까?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세력이 무서워 빨간색타이도 못매는 김대중을 찍겠습니까?

철거민 학살에나 앞장서며 눈썹 하나로 먹고사는 조순입니까?

경선결과를 무시하고 스스로 국민들과 수차 다짐했던 약속마저도 권력에 눈이 어두워 헌신처럼 내팽개치는 정신이 왔다 갔다하는 이인제에게서 민주주의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노벨폭로상감인 강삼재를 추대하겠습니까?

하나같이 버릴래도 쓰레기봉투가 아깝고 젖은 쓰레기는 가져가지도 않으니 이 썩은 쓰레기들은 버릴데도 마땅찮아 골머리가 아픕니다.

더구나 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회복을 위해 정리해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하나같이 세미코마 상태인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님은 역사상 최초로 총파업을 조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고 이미 총파업의 결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바가 있습니다.

실업자가 10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용노동자 700만보다 더많은 노동자

들이 일용직, 임시직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얼음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산업부는 10월 1일 건설, 항만, 운송을 제외한 전 업종에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재경원은 구조조정특별법이라는 정리해고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퇴직금도 이미 우리 돈이 아닙니다. 나라경제를 맡아먹은 큰 도둑놈들은 전부 사면복권되고 감방은 학생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좁도둑들로 넘쳐납니다.

사방팔방 천방지축으로 저들이 아무리 설치박아 이제 저들만의 잔치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해내고 현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지고 일상적인 정치 선전선동을 해내며 그 힘들이 하나로 모일 때 이번 대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 땅에서 지역을 불모로 한 지역구도의 선거판을 끝장내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구도의 한판 격전장이 될 것입니다.

진실이나 정의는 양심을 흔드는 힘은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가 투쟁의 무기일수는 없습니다. 투쟁의 무기는 조직입니다.

이번 대선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난 총파업의 연장선이며 총자본의 도발에 대한 총노동자의 제2차 반격인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선거란 노

때로는 폭풍우도 만날 것이고 그늘 한자락 없는 피약벌을 걷기도 할 것이고 눈썹인 산맥을 넘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 아이를 지켜준다면 멀지 않은 날 그 아이는 우리의 우산이 되고 그늘이 될 것이며 든든한 울타리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애들이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주인을 선택하는 행위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신은 달라야 합니다.

두달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총파업을 조직해서 영삼이를 저승사자 코앞까지 끌고 가 결국 영삼이를 뒷방 늙은이로 만들어 버린 위력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힘은 권영길후보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민주노총 52만, 병원노련 3만5천이 모두 권영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이 자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의원대회가 될 것이며, 동지 여러분들은 병원노련 역사상 가장 숭고한 순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고 닦아온 의료산별건설계획이 단순한 문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에서 절절히 녹아 끓는 핏줄기로 하고 현장에서 머나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동지들이 해고되고 구속되고 목숨마저 빼앗겨야 했던 10년 세월의 울분과 한과 눈물과 땀이 거기엔 배어 있습니다.

10년만에 얻은 첫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은 두렵기조차 하지만 그보다는 감

격과 보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도 만날 것이고 그늘 한자락 없는 피약벌을 걷기도 할 것이고 눈썹인 산맥을 넘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 아이를 지켜준다면 멀지 않은 날 그 아이는 우리의 우산이 되고 그늘이 될 것이며 든든한 울타리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산별이라는 하나의 나무에서 어떤 사과든 아주크고 탐스럽게 열릴 것이며 어떤 열매든 작고 보잘것없이 열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 나뭇가지의 책임이며 역할입니다.

동지들! 부디 훌륭한 나뭇가지가 되어 주십시오.

의료산별노조의 깃발에 새겨진 선배일사들의 수많은 명함과 동지들의 투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와 함께 승설 것입니다.

1997년 10월 15일

위원장 박문진